

프로야구는 U+로 봅니다  
아파-인능 U+ 프로야구 앱 다운로드 받으세요!  
ONE스토어 / 플레이스토어 / 앱스토어 ▶ U+ 프로야구 검색



헥터

버나디나

팻딘

# 아임 소리...승리를 소리



‘위기의 팀을 구하라’ 결의 다지는 KIA 외국인 선수들

날짜 앞당겨 출격하려던 헥터, 팻딘 이어 오늘 LG전 등판

손바닥 부상에 타격·수비 부진 버나디나 휴식일 특타 자처

부침을 겪은 KIA 타이거즈의 외국인 선수들이 반전을 부를까?  
‘디펜딩 챔피언’ KIA이 시즌 초반은 마음과 같지 않았다. 우승 멤버들이 그대로 라인업을 지켰지만 타선의 집중력이 떨어졌다. 불펜진이 지난해와 달리 안정감 있는 모습으로 출발했지만, 선발진에 힘이 떨어지는 모습이였다.  
특히 헥터가 기록을 보이면서 KIA의 승률도 달라졌다.  
시즌 개막전 선발로 나선 헥터는 kt 위즈의 고졸 투수 강백호에게 데뷔 홈런을 내주는 등 5.1이닝 4실점으로 첫 등판을 소화했고, 팀은 4-5 패를 당했다. 두 번째 등판이었던 LG 트윈스 원정에서는 6이닝 2실점으로 승리투수가 됐지만, 매서

움이 떨어졌다.  
그리고 넥센 히어로즈와의 경기에서 마침내 7이닝까지 소화하면서 위명업을 끝내는 것 같았지만 네 번째 등판은 2이닝 만에 종료됐다.  
지난 12일 한화 이글스와의 원정경기에서 나온 헥터는 1회부터 정근우에게 투런포를 맞는 등 4실점을 했고, 2회에도 3점을 더 내주면서 일찍 강판됐다. 믿었던 헥터의 부진으로 팀은 한화에 싹쓸이 3연패를 당하고 돌아왔다.  
헥터는 17일 LG와의 홈경기에서 선발로 나와 22일 잠시 원정까지 이번 주 두 차례 등판을 소화할 예정이었다. 앞선 한화전에서 58개의 공만 던졌던 만큼 날짜를 앞당겨 출격해 팀에 기여하겠다는 생각이였다.

하지만 롯데 자이언츠와의 지난 주말 두 경기 모두 좌소되면서 정상적으로 훈련과 경기를 하지 못한 만큼 특별 훈련을 자청한 것이다.  
버나디나의 시즌 초반 움직임은 좋았다. 개막 후 7경기에서 29타수 11안타(1홈런)를 터트리면서 0.379의 타율을 기록했다. 번번이 방망이가 헛돌면서 우려를 샀던 지난 시즌 초반과는 전혀 다른 움직임이었다.  
그러나 지난 6일 스윙 도중 손바닥 부상을 입으면서 버나디나의 기세가 주춤했다. 7일 부상 여파로 타석에 서지 않았던 버나디나는 이후 5경기에서 18타수 4안타(타율 0.222)에 그쳤다. 수비에서도 아쉬운 장면이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팀에 위기가 찾아오자 버나디나는 휴일에도 훈련을 하며 칼을 갈았다. 두 번이나 등판이 미뤄졌던 팻딘도 이날 경기장에 나와 공을 던졌다.  
남다른 각오로 한 주를 시작한 외국인 선수들이 반전을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앞서 두 경기 좌소되면서 정상적으로 훈련과 경기를 하지 못한 만큼 특별 훈련을 자청한 것이다.  
버나디나의 시즌 초반 움직임은 좋았다. 개막 후 7경기에서 29타수 11안타(1홈런)를 터트리면서 0.379의 타율을 기록했다. 번번이 방망이가 헛돌면서 우려를 샀던 지난 시즌 초반과는 전혀 다른 움직임이었다.  
그러나 지난 6일 스윙 도중 손바닥 부상을 입으면서 버나디나의 기세가 주춤했다. 7일 부상 여파로 타석에 서지 않았던 버나디나는 이후 5경기에서 18타수 4안타(타율 0.222)에 그쳤다. 수비에서도 아쉬운 장면이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팀에 위기가 찾아오자 버나디나는 휴일에도 훈련을 하며 칼을 갈았다. 두 번이나 등판이 미뤄졌던 팻딘도 이날 경기장에 나와 공을 던졌다.  
남다른 각오로 한 주를 시작한 외국인 선수들이 반전을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임기영 컴백 KIA ‘천군만마’

주말 두산전 출격 “시즌 첫 등판 즐겁게 하겠다”

1군에 합류한 KIA 타이거즈의 사이드암 임기영(사진)이 화제의 인물이었다. 아예 부상으로 재발을 해왔던 임기영이 17일 챔피언스필드에 등장했다. 주말 두산 베어스와 원정경기에서 선발로 나서게 된 임기영은 미리 팀에 합류해 시즌 첫 등판을 준비하게 됐다.  
KIA 야수 최고참 정성훈이 임기영을 둘러싼 취재진을 보고 “우리 팀에 오타나가 왔다”고 웃을 정도로 임기영에 관심이 쏠려왔다.  
이민우와 정용운으로 4·5선발을 구성해 시즌을 시작했던 KIA는 두 선수의 부진으로 최근 선발진 재조정에 들어갔다. 시즌 첫 등판에서 강렬한 인상을 심어준 한승혁이 지난 10일 선발 역할을 맡아 연착륙을 했지만, 정용운이 지난 11일 한화전 이후 엔트리에서 말소됐다.  
그만큼 임기영의 합류 시점은 KIA의 관심사였다. 호원대와의 연습경기에서 이어 지난 8일 상무와의 퓨처스리그에서 정식으로 시즌을 연 임기영은 13일 kt전에서 마지막 점검을 끝내고 이날 1군 선수단에 합류했다.  
임기영은 “항상 여기에 오면 좋다. 지난 금요일 경기에서 느낌이 좋았다. 준비를 잘하고 왔다”며 합류 소식을 밝혔다.  
지난 시즌 경험을 바탕으로 천천히 완벽하게 돌아왔다는 게 임기영의 설명이다.  
임기영은 “지난해 급하게 올라왔다가 부진해서 내려가면서 많은 걸 배웠다. 이번에는 (재활군에) 내려갈 때부터 내려놓고 천천히 한다고 생각했다. 지난해에는 내려가서 마음 급해질까 봐 야구도 안 봤었다. 하지만 올해는 야구도 다 보면서 차분하게 준비했다”고 말했다.  
LG 김현진, 넥센 박병호, kt 황재균



등 새로 가세한 타자들이 많은 만큼 흥미롭게 올 시즌을 지켜본 임기영은 배터리를 믿고 즐겁게 경기를 하겠다는 생각이다.  
임기영은 “원래 뛰어났던 타자들이 다. 누구를 만나더라도 민식이 형 믿고 던지면 될 것 같다”면서도 “강박호는 정말 잘 치더라. 헥터한테 홈런 치는 것을 보면서 다들 놀랐다. 언젠가는 상대하게 될 것이다”며 웃음을 보였다.  
임기영은 지난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만났던 두산을 상대로 2018시즌 첫 등판을 하게 된다. 생애 첫 한국시리즈 등판에서도 ‘배짱투’를 하며 두산전 승리투수가 됐었던 임기영은 “긴장은 되지 않는다”며 첫 등판을 기대했다.  
임기영은 “지난해와는 또 다른 대결 양상이 될 것 같다. 원래 긴장은 하지 않는 성격이다. 그런데 지난 상무전 등판을 앞두고는 긴장을 했다. 아무래도 부상 이후 처음 던지는 것이어서 또 아프면 어떻게 할까 걱정을 했던 것 같다”며 “느낌은 괜찮다. 좋은 모습 보이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

## ‘닥터 K’ 류현진 시즌 2승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류현진이 16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팻코파크에서 열린 2018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의 경기에서 역투하고 있다. /연합뉴스

샌디에이고전 6이닝 2실점 호투...삼진 9개 ‘시즌 한 경기 최다’

류현진(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시즌 한 경기 최다 삼진을 뽑아내며 2경기 연속 퀄리티스타트(QS·선발 6이닝 이상 3자책점 이내 투구)로 시즌 2승(무패)째를 수확했다.  
류현진은 17일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의 방문 경기에서 선발 등판해 6이닝 동안 삼진 9개를 솟아내며 2실점 했다.  
류현진은 6-2로 앞선 7회말 토니 싱그라니에게 마운드를 넘겼다. 다저스가 야스마니 그란달의 9회초 만루홈런 등 10-3으로

대승함에 따라 류현진은 여유 있게 2승째를 거뒀다.  
탈삼진 9개는 지난 11일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와의 경기(8개)를 뛰어넘는 올 시즌 개인 한 경기 최다 탈삼진이다. 류현진의 한 경기 최다 탈삼진은 2013년 5월 1일 콜로라도 로키스를 상대로 작성한 12개다.  
시즌 첫 홈런을 내준 게 속에 티였지만, 류현진은 이날 안타 3개만 허용하고 2점으로 실점을 최소화했다. 류현진은 공 93개를 던져 57개를 스트라이크로 꽂았다. 평균자책점은 2.79에서 2.87로 약간 올랐다.

빠른 볼의 최고 시속은 148km에 머물렀으나 스트라이크 존을 정교하게 파고든 제구를 앞세워 탈삼진 9개 중 5개를 속구로 잡았다.  
류현진은 팻코파크에서 통산 4경기에서 선발 등판해 3승 무패, 평균자책점 1.38로 강세를 이어갔다.  
두 경기 연속 QS를 펼친 류현진은 선발진 부진으로 애를 태우는 팀에 단비를 적셨다.  
1회 첫 타자 호세 피렐라에게 볼 3개를 내리던 류현진은 풀카운트에서 컷 패스트볼(커터)로 3루수 망블로 요리하며 한숨을 돌렸다. 프레디 갈비스와 에릭 호스머

는 각각 삼진, 2루수 망블로 잡았다.  
그러나 류현진은 샌디에이고가 자랑하는 우타 거포와 맞닥뜨린 2회 시즌 첫 홈런을 허용했다.  
다저스가 1-0으로 앞선 2회말, 4번 타자 헌터 렌프로에게 2루타를 내준 류현진은 5번 크리스티안 비야누에바에게 총알처럼 좌측 펜스를 넘어가는 2점 홈런을 맞았다. 류현진은 흔들리지 않고 삼진 2개를 솟아내며 후속 세 타자를 묶고 추가 실점을 피했다.  
동료 타자들의 화려 지원으로 6-2로 앞선 3회 다시 마운드에 오른 류현진은 풀카운트에서 대타 맷 시저와 피렐라를 연속

삼진으로 잡는 등 삼자 범퇴로 이닝을 마쳤다.  
류현진은 4회 1사 후 렌프로를 몸에 맞은 볼로 내보내고 비야누에바에게 좌전 안타를 맞아 1-2루 실점 위기에 몰렸다. 하지만 프란치 코르테로, 카를로스 아수아헤를 연속 삼진으로 솟아내고 덕아웃으로 향했다.  
류현진은 6회 세 번째로 만난 렌프로를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우는 등 5~6회를 잇달아 삼자 범퇴로 막고 샌디에이고의 추격을 뿌리쳤다.  
류현진은 세 차례 타격 기회에서는 모두 삼진으로 물러났다. /연합뉴스



## 박인비 시즌 2승 도전

내일 LPGA LA 오픈 개막

상승세의 ‘골프 여제’ 박인비가 새로 생긴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대회에서 시즌 두 번째, 통산 스무 번째 우승을 노린다.  
박인비는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월셔 컨트리클럽(파72·6450야드)에서 열리는 LPGA 투어 휴젤-JTBC LA 오픈(총상금 150만 달러)에 출전한다.  
한국의 미용 의약품 기업 휴젤과 종합편성채널 JTBC가 후원하는 이 대회는 올해 처음 열리는 대회다.  
가장 주목받는 선수는 박인비다.  
지난 2년간 부상으로 시즌을 조기에 마감했던 박인비는 지난달 뱅크 오브 호프 파운더스컵에서 우승하면서 완벽한 부활을 알렸다. 이후 시즌 첫 메이저대회인 ANA 인스퍼레이션에서 준우승, 지난주 롯데 챔피언십에서 공동 3위에 오르며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ANA 인스퍼레이션과 롯데 챔피언십은 가시권에 있던 우승을 막판에 놓쳐 아쉬움을 남긴 대회이기도 했다.  
ANA 인스퍼레이션에서는 8차까지 간 ‘1박 2일’ 연장 접전 끝에 페르닐라 린드베리(스웨덴)에게 우승컵을 내줬다. 롯데 챔피언십에서는 마지막 날 17·18번 홀 연속 보기에 발목을 잡혀 추격에 실패했다.  
특히 롯데 챔피언십에서 우승했다 라면 박인비는 세계랭킹 1위를 탈환할 수도 있었다.  
박인비가 이번 대회 초대 챔피언에 오르면 상승세를 재확인하고 직전 대회의 아쉬움도 털어낼 수 있다. 또 시즌 2승과 함께 통산 20승 위업도 이룬다. /연합뉴스